

# 부모보고를 통해 중단관찰한 한국 아동의 초기 문법형태소 습득

이희란\* · 장유경\*\* · 최유리\*\* · 이승복\*\*\*.§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이희란 · 장유경 · 최유리 · 이승복. 부모보고를 통해 중단관찰한 한국 아동의 초기 문법형태소 습득.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 제13권, 제2호, 159-173.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초기 문법형태소 습득의 전반적인 발달 기준을 얻기 위하여, 아동의 조사와 연결어미, 종결어미 표현을 부모를 통해 중단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방법:** MCDI-K (배소영, 2003)에 제시된 표현어휘목록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의 총 30개 문법형태소(종결어미 15개, 조사 12개, 연결어미 3개)에 대해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23명 아동의 부모를 통해 아동의 표현 여부를 조사하였다. 아동들이 18개월 당시 처음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323명이었으나, 최종 36개월에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276명이었다. **결과:** 관찰조사가 시작된 18개월에는 극히 소수의 아동에게서 문법형태소의 산출이 시작되었으나, 관찰 종료된 시점인 36개월에는 종결어미 평균 12개, 조사 9.67개, 연결어미 2.15개가 산출되어 이 시기 문법적 형태소의 습득이 비교적 안정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달적인 문법형태소의 증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평균 문법형태소의 표현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개인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한국 아동은 두 단어 조합이 시작되는 18개월 시점에 문법형태소 산출이 시작되어 36개월 시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산출이 이뤄지나 이러한 발달시점에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문법형태소 분석 자료는 언어발달연구나 장애아동의 중재에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4회기에 걸친 중단적 관찰 측정을 시도함으로써 발달적 추이를 살펴본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핵심어:** 중단연구, 종결어미, 조사, 연결어미, 문법형태소, 언어발달

## I. 서 론

단일단어 시기를 지나면 아동은 두 단어를 조합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초기의 두 단어 조합은 두 단어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점차 동사의 용법을 익히기면서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기본 문장 형식을 말하게 된다. 이처럼 단일 단어 시기에서 벗어나 하나 이상의 단어를 조합

---

게재 신청일: 2008년 4월 15일; 최종 수정일: 2008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2008년 5월 10일

§ 교신저자: 이승복,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번지, e-mail: lsbok@chungbuk.ac.kr, tel.: 043-261-2193

© 2008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동은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 곧 문법을 습득한다. 이 시기에 사용되는 초기 문장에는 명사, 동사 등 주요 문법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지만, 문법 형태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법적 요소들도 전달하는 의미가 있지만 명사와 동사보다는 그 전달의미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Brown, 1973). 실제로 초기 문장에서 아동들은 여러 문법 요소들이 생략된 전보식(telegraphic) 문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형식의 문장에서는 문법형태소(grammatical morphemes)가 생략되어 있다.

초기 아동 언어, 곧 전보식 문장 방식의 두 단어 조합에서 사용되는 문법적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의미론적 관계라면, 발달이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의미론적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문법형태소의 습득 때문이다(이승복·이희란, 2006). 문법형태소가 풍부한 굴절어이든 형태소가 다양하지 않은 언어이든 문법형태소는 각 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그 출현과 발달에서 우리는 인간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요인 때문에 문법형태소의 습득이 어려운지를 아동언어 자료에서 검토, 분석해보는 작업으로 문법 요소를 쉽게 습득하게 해주는 일반적인 원리를 밝히고 동시에 언어습득의 원리로 일반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언어습득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Hoff, 2004).

문법형태소의 습득은 통사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어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문장 내에 체언으로 자리하는 명사에 격조사를 사용하여 그 문장구성성분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 단어가 문장의 어느 위치에 오든지 상관없이 없어진다. 따라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앞에 말하고 어떤 단어를 뒤에 말할지 어순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이승복·이희란, 2006). 정상아동과 달리 언어발달 속도가 느리거나 언어발달에 결함이 있는 아동이라면 이러한 문법표지의 습득은 한국어의 다른 문법특성과 비교해 무척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어의 특성 역시 일정한 순서짓기 원칙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언어장애 아동에게는 혼란스러운 요인으로 지각될 수 있어, 문법형태소의 습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법형태소 습득의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도 방식을 고안하는 작업은 언어발달연구나 장애아동의 언어중재에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법형태소의 발달은 이처럼 언어발달에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연구를 위한 기준의 설정이나 정상적인 발달 지표에는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에서 문법형태소 습득과 관련된 연구들은 종단적 발화자료의 분석을 통한 관찰연구에서의 표현언어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이승복·이희란, 2006; 이희란, 2004; 조명한, 1982; Clancy, 2001; Kim, 1990; Kim, 1997; Lee, 2001 등), 이해와 관련된 실험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배소영, 1997; 이순형, 2000; 이승희·황민아, 2002). 한국 아동의 주격조사 및 보조사 습득과 관련된 연구로, 조명한(1982)은 5명 아동의 종단연구를 통한 자발적 발화를 토대로 한국어에서 조사는 1세 9개월경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며 조사의 출현 순서는 접속조사(‘랑, 하고, 같이’)와 보조사(‘도’), 처소격조사(‘에, 로, 한테’), 주격조사(‘가’), 보조사(‘는’), 목적격조사(‘을 / 를’), 도구격조사(‘로’)의 순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1세 후반에서 2세 초반 경에 공존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가 출현하고, ‘도’의 획득 이후에 대조를 나타

내는 ‘는’이 2세 초반부터 3세 이전에 출현하며, ‘만’은 대조의 ‘는’이 나타난 이후에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Lee (2001)는 주격조사와 함께 대조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는’이 약 1세 8개월에서 2세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찍 출현하는 조사이며, 그 다음에 처소격조사 ‘에’가 약 1세 10개월경, 그리고 목적격조사가 1세 11개월에서 2세 8개월 사이에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만’, ‘도’와 같은 보조사도 ‘는’과 유사한 시기에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의 경우, 주격조사보다 좀 더 일찍 출현한다고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Kim, 1990; Lee, 2001), 1;8~2;0세에서 주격조사가 보조사 ‘는’보다 한 달 가량 일찍 출현한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조명한, 1982; Kim, 1997). 그러나 한국 아동이 초기 주어 및 주제의 습득과정에서 보조사 ‘은/는’을 ‘주제’보다는 ‘대조’의 의미로서 먼저 산출한다는 주장에는 함께 동의하고 있다(조명한, 1982; Kim, 1997; Lee, 2000).

아동의 문법형태소의 이해와 관련한 실험연구에서 배소영(1997)은 2세에서 7세에 이르는 60명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가, 이, 는, 도, 를’의 이해를 [S + V](예: ‘엄마가 그리네’) 또는 [O + V](예: ‘엄마를 그리네’) 문장 50개로 검사하여 정반응율, 반응시간으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령별 발달 변화를 살핀 결과, ‘가, 이, 는’이 발달한 다음 ‘를’이 발달하고 ‘도’의 발달이 가장 늦었다고 한다. 사실상 조사의 습득은 이해와 산출 모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보조사 ‘도’가 목적격 조사보다 늦게 습득된다는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비교한 해석이 필요하다.

조사와 보조사의 습득 연구들에 비해 어미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희선 · 이승환(1999)은 2~5세 정상아동 160명을 대상으로 두 개의 그림카드를 제시한 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그림을 설명하도록 하여 연결어미에 대한 산출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나열의 연결어미 ‘-고’와 이유의 연결어미 ‘-서’가 2;0~2;5세에 출현하였으며, 대답이나 동시 연결어미들은 2세 후반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Kim (1997)은 1세 후반부터 2세까지 4명 아동의 중단연구를 통한 발화자료 분석을 토대로 어미 산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 아동들은 1세 후반부터 2세를 전후하여 ‘-다’ ‘-아’ 등의 종결어미를 산출하며, 초기 어미산출에서 다양한 양상(mood)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양상을 포함한 초기 어미 표현에서조차 말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과 관련한 기존의 표현 연구들은 적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단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이 대표적이며, 단기 중단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여 문법형태소의 발달 지도를 그리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험연구를 통한 이해연구들이 있지만 조사 대상이 된 문법형태소 역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초기 언어발달 과정에서 문법형태소의 전반적인 발달을 추적해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법형태소의 발달은 각 언어의 고유한 문법 발달이 시작되는 지표가 된다. 이전 시기의 두 단어 조합은 언어보편성을 보여주는 의미관계의 표현이다. 문법형태소를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들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어습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언어습득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법형태소의 습득과정과 그 발달 시기에 대한 비교로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예측치가 된다. 특히 언어발달

장애 아동에게서 언어적 결함의 정도를 변별적으로 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측정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달적 지표로 기능하려면,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통한 양적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문법형태소의 발달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야 전반적인 발달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문법형태소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머니를 통한 일상적인 환경에서 아동의 습득 언어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문법형태소의 초기 표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습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한 종단적인 문법형태소 사용을 확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좀 더 적당한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어휘 발달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며 부모 체크리스트인 MCDI-K (배소영, 2003)에 제시된 표현어휘목록 가운데 종결어미와 조사, 연결어미 세 가지 유형 총 30개 어휘에 대해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종단적 수집 자료의 분석을 통해 초기 문법형태소 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는 영아와 그 어머니들로,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한술종단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다. 각 개월별 참여자의 수는 18개월(M = 18.01, SD = 0.32) 323명, 24개월(M = 24.1, SD = 0.29) 320명, 30개월(M = 30.1, SD = 0.30) 298명, 그리고 36개월(M = 36.1, SD = 0.29) 276명이다.

### 2. 도구

연구 대상 아동의 표현어휘수를 측정하기 위해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MCDI) (Fenson et al., 1993)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 영유아들에게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이하 MCDI-K) (배소영, 2003)를 사용하였다. MCDI-K는 총 641개의 어휘를 2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는데, 그 범주는 소리, 탈것, 장난감 및 문구류, 동물, 음식, 옷, 가구 및 방안, 신체 부위, 가정용품, 외부사물, 일상생활, 장소, 양 및 정도, 사람, 의문사, 동사, 형용사, 종결어, 조사, 연결어, 위치, 시간, 대명사, 돕는 말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과 관계있는 세 가지 유형의 문법형태소 30개 즉, 종결어 15개, 조사어 12개, 연결어 3개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 또는 발달심리학 석사인 검사자들이 직접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에게 MCDI-K를 제공하고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때 표현어휘에 체크하는 경우는 참조물 없이 아동이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발화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아동이 발화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모방하여 발화하는 경우, 우연히 한 번 정도 발화한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 4.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아동의 4회에 걸친 문법형태소의 평균 산출 수에 대한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전 과정은 SPSS for Windows (ver. 1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Ⅲ. 연구 결과

아동들이 18개월 당시 처음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323명이었으나, 최종 36개월에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276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18개월 323명, 24개월 320명, 30개월 298명, 36개월 276명의 아동들에게서, 세 가지 범주의 문법형태소 즉, 조사 12개, 연결어미 3개, 종결어미 15개에 대해 각각 나타난 평균 산출수를 <표-1>에 제시하였다. 18개월에는 매우 적은 수의 문법형태소들이 산출되고 있으며, 세 유형 가운데 그나마 종결어미가 좀 더 나타나고 있으나 출현률은 매우 미미하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 문법형태소의 산출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월 이후 문법형태소의 세 유형 모두에서 산출 수가 증가하는 것을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 18~36개월에 산출된 문법형태소의 범주별 기술통계

문법형태소(어휘수)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종결어미(15)	0.41(1.22) <sup>a)</sup>	3.69(4.26)	9.15(5.10)	12.00(4.04)
조사(12)	0.17(0.73)	2.77(3.70)	6.97(4.45)	9.67(3.58)
연결어미(3)	0.009(0.96)	0.46(0.90)	1.38(1.25)	2.15(1.14)

<sup>a)</sup>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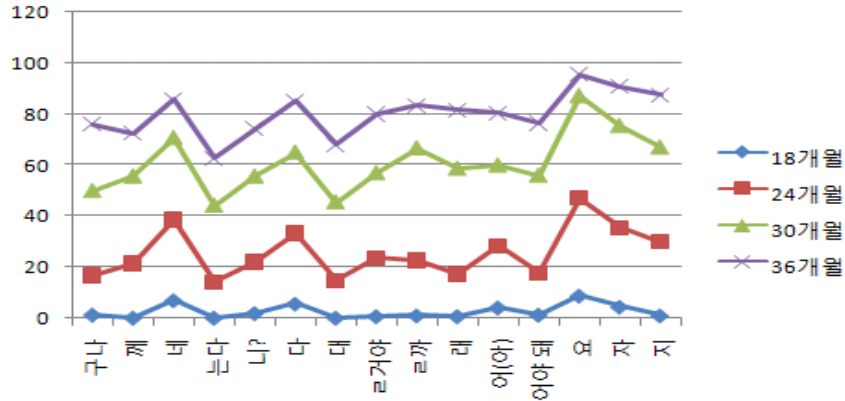
이러한 전체 문법형태소의 산출을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각각으로 나누어 발달적 추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1. 18~36개월의 종결어미 발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문법형태소 발달은 18개월과 비교해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 2> 참조). 18개월에는 종결어미의 산출이 매우 제한적인데, 대상 아동 323명 가운데 8.9%인 29명 아동만이 '-요'를 산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매우 적은 수의 아동들에게서만 종결어미가 보고되고 있으며, '-네'가 7.1%의 아동에게서, '다'는 5.8%의 아동에게서만이 산출이 보고되었다. 24개월에는 역시 18개월에 산출빈도가 가장 높았던 '-요'와 함께 '-네', '-다', '-자' 등이 30% 이상의 아동에게서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2> 18~36개월 아동의 종결어미 산출 비율(%)

연령 문법형태소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구나	1.5(5/323)	16.8(54/320)	50.0(149/298)	76.0(210/276)
-계	0.3(1/323)	21.5(69/320)	55.7(166/298)	72.4(200/276)
-네	7.1(23/323)	38.7(124/320)	70.8(211/298)	85.8(237/276)
-는다	0.3(1/323)	14.3(46/320)	44.2(132/298)	62.6(173/276)
-니?	2.1(7/323)	22.1(71/320)	55.7(166/298)	74.2(205/276)
-다	5.8(19/323)	33.4(107/320)	65.1(194/298)	85.1(235/276)
-대	0.3(1/323)	14.6(47/320)	45.6(136/298)	67.7(187/276)
-르거야/테야	0.9(3/323)	23.7(76/320)	57.0(170/298)	80.0(221/276)
-르까	1.2(4/323)	22.8(73/320)	66.7(199/298)	83.3(230/276)
-래	0.9(3/323)	17.5(56/320)	58.7(175/298)	81.5(225/276)
-어(아)	4.3(14/323)	28.4(91/320)	60.0(179/298)	80.4(222/276)
-어야 돼	1.5(5/323)	17.8(57/320)	56.0(167/298)	76.4(211/276)
-요	8.9(29/323)	47.1(151/320)	87.2(260/298)	95.6(264/276)
-자	4.6(15/323)	35.6(114/320)	75.5(225/298)	90.9(251/276)
-지	1.2(4/323)	30.0(96/320)	67.1(200/298)	87.6(242/276)



<그림 - 1> 18~36개월에 산출된 종결어미

30개월은 비교적 종결어미의 산출 비율이 높아지는데, ‘-는다’와 ‘-데’를 제외하고는 50% 이상의 아동들이 대부분의 종결어미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6개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종결어미의 표현이 전체 대상 아동의 50% 이상에게서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 1> 참조).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종결어미 발달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 3>에 제시되었다.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종결어미 산출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결어미 습득에 있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도 종결어미의 사용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개인차는 표준편차가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30개월에 최고에 이르렀던 편차가 그 다음 관찰 시기인 36개월에는 감소하기 시작하며, 평균도 전체 15개 중에 12개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면, 이 시기에 이르러 종결어미의 표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 3> 18~36개월에 산출된 종결어미의 기술통계

	산출된 종결어미의 수				F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8개월	0.41	1.22	0	13	1142.8***
24개월	3.69	4.26	0	14	
30개월	9.15	5.10	0	15	
36개월	12.0	4.04	0	15	

\*\*\* $p < .001$

## 2. 18~36개월의 조사 발달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조사 발달과정을 <표 - 4>에 제시하였다. 종결어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시작된 18개월과 비교해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18개월에 비교적 먼저 산출되는 조사는 주격조사 '-가'였으며 3.7% 정도의 아동에게서 산출되고 있었다. 서술격 조사 '-야' 역시 전체 대상 아동 가운데 3.7%에게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용언으로 구성되는 격조사의 형식으로 가장 먼저 산출되는 문법형태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24개월에는 주격조사 '-가'의 산출이 급증함과 동시에 '-는', '-도' 같은 보조사들의 산출이 증가하며 그 밖에 공존격 조사들의 산출도 증가하고 있다.

30개월에 이르러 목적격 조사 '-를(을)'의 산출이 50% 이상의 아동에게서 관찰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조사 산출이 50% 가까운 아동에게서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6개월에는 도구격 조사 '로'를 제외하고는 75% 이상의 아동들에게서 12개 조사가 산출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르러 많은 아동들이 한국어의 조사 사용에 비교적 숙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 4> 18~36개월 아동의 조사 산출 비율(%)

연령 문법형태소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가(이)	3.7(12/323)	41.2(132/320)	78.1(233/298)	81.5(225/276)
-는(은)	1.2(4/323)	22.8(73/320)	62.0(185/298)	82.9(229/276)
-도	2.1(7/323)	28.1(90/320)	62.7(187/298)	84.7(234/276)
랑	1.2(4/323)	29.6(95/320)	67.1(209/298)	88.7(245/276)
로	0(0/323)	8.7(28/320)	39.5(118/298)	64.8(179/276)
-를(을)	0.3(1/323)	15.6(50/320)	50.0(149/298)	77.5(214/276)
만	0.6(2/323)	18.1(58/320)	47.9(143/298)	76.4(211/276)
야	3.7(12/323)	28.7(92/320)	54.3(162/298)	76.0(210/276)
에	0.9(3/323)	18.7(60/320)	48.6(145/298)	75.7(209/276)
에서	0.6(2/323)	13.7(44/320)	51.3(153/298)	76.4(211/276)
-하고	0.9(3/323)	25.0(80/320)	65.7(196/298)	85.1(235/276)
-한테/에게	1.5(5/323)	26.8(86/320)	67.1(200/298)	86.5(239/276)

산출된 조사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 5>에 제시하였는데,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평균 조사의 표현 수는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나, 다른 문법형태소들의 습득 경향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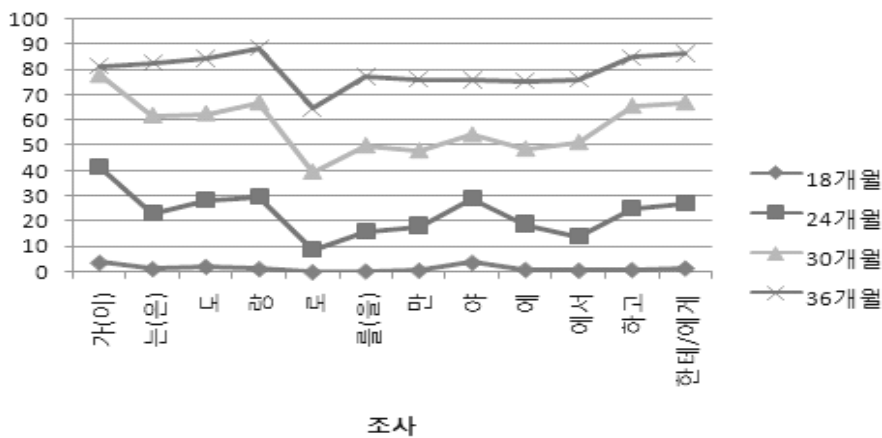


<표 - 5> 18~36개월에 산출된 조사의 기술통계

산출된 조사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18개월	0.17	0.73	0	7	930.11***
24개월	2.77	3.70	0	12	
30개월	6.97	4.45	0	12	
36개월	9.67	3.58	0	12	

\*\*\* $p < .001$

종결어미의 산출에서의 마찬가지로 조사의 산출에서도 습득에서의 안정적인 경향을 36개월에 서야 관찰할 수 있는데,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 조사의 산출에서 표준편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초기 습득에서는 많은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개월까지 계속 증가하던 편차는 36개월에는 감소하기 시작하며, 평균도 전체 12개 중에 9.67개에 이르러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종결어미의 표현이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그림 -2> 참조).



<그림 - 2> 18~36개월에 산출된 조사

### 3. 18~36개월 연결어미 발달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전체 문법형태소 가운데 연결어미는 습득이 가장 뒤늦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18개월 시기에 연결어미의 산출은 매우 적는데, ‘-고’만이 단지 3명의 아동에게서 관찰된다. 24개월에 ‘-고’의 산출이 급증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어휘의 급증과 문장 표현이 증

가하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듯하다. 연결어미 '-는데'와 '-서' 역시 24개월과 36개월에 이르러 산출 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표 - 6> 참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 사용하는 연결어미 자체가 그리 많지 않으며, 실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되었던 연결어미도 그 수가 비교적 적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세 가지의 연결어미의 산출은 36개월 정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 6> 18~36개월 아동의 연결어미 산출 비율(%)

연령 문법형태소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고	0.9(3/323)	21.5(69/320)	51.0(152/298)	76.4(211/276)
-는데	0(0/323)	12.8(41/320)	43.6(130/298)	72.1(199/276)
-서	0(0/323)	11.8(38/320)	44.2(132/298)	66.6(184/276)

이미 관찰한 다른 문법형태소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선택 관찰한 연결어미 역시 <표 - 7>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평균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준편차의 증가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18개월부터 30개월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개월에 1.25이던 표준편차는 36개월에 1.14로 감소하고 평균 습득 연결어미수도 36개월에는 전체 3개 가운데 2.15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종결어미의 습득이 비교적 60% 이상의 아동들에게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 7> 18~36개월 산출된 연결어미의 기술통계

산출된 연결어미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18개월	0.009	0.96	0	1	486.27***
24개월	0.46	0.90	0	3	
30개월	1.38	1.25	0	3	
36개월	2.15	1.14	0	3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의 초기 문법형태소 습득의 전반적인 발달 기준을 얻기 위하여, 조사와 연결어미, 종결어미 총 30개의 문법형태소의 표현을 부모를 통해 중단적으로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연구에서 얻은 양적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문법형태소의 발달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초기 어휘발달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부모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인 MCDI-K (배소영, 2003)에 제시된 표현어휘목록 가운데 조사와 종결어미, 연결어미의 분석을 통해 초기 문법형태소 발달을 살펴보았으며, 동일한 아동을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의 4회에 걸쳐 중단적으로 관찰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의 초기 문법형태소 습득의 경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관찰이 시작된 18개월부터 323명의 관찰대상 아동 가운데 평균 종결어미는 15개 가운데 평균 0.41개, 조사는 12개 가운데 0.17개, 연결어미는 3개 가운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관찰 조사가 시작된 18개월에는 극히 소수의 아동에게서 문법형태소의 산출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찰이 종료된 시점인 36개월에는, 종결어미는 평균 12개, 조사는 9.67개, 연결어미는 2.15개가 산출되어 이 시기에 이르면 관찰대상 문법형태소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사 대상이었던 종결어미, 조사, 연결어미의 전체 문법형태소의 산출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발달적인 증가 수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산출된 평균 문법형태소의 수는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유형의 문법형태소 모두 36개월 시기에 표준편차가 감소하며 70% 가까운 아동이 이러한 세 유형의 문법형태소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 지므로 이시기를 안정적인 출현시기로 볼 수 있었다.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한국어에서 습득이 까다로운 문법형태소의 발달추이에 대한 접근은 언어발달연구나 장애아동의 중재에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법형태소가 언어발달의 중요한 지표로서 의의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연구를 위한 정확한 기준이나 발달지표로 쓰일 정도의 문법형태소 발달 연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법형태소의 발달은 각 언어의 고유한 문법 발달의 시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초기 문법형태소의 습득 여부와 시기는 이후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치로 작용한다. 한국어에서 문법형태소는 문장의 구성성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국어의 특성상 많은 문법형태소들이 생략된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생략은 많은 경우 담화-화용적 특성을 지니므로 어느 한국어 문법 교과서도 이러한 생략의 규칙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는 없다. 이러한 담화-화용적인 생략이라는 한국어의 특성과는 별개로 전 세계의 어린 아동들은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문법형태소를 생략하여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인지적 제한으로 충분한 길이의 발화를 말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 문법형태소가 생략될 수도 있다(Hoff, 2005). 혹은 한국어처럼 성인언어에서 쉽게 생략되는 입력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은 담화-화용적인 생략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생략과 표현의 규칙을 익히는 반면, 언어장애 아동들은 이러한 규칙이 더욱 더 문법형태소의 습득을 어렵게 하는 방해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형태소의 초기 습득 정도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에게서 언어적 결함의 정도를 변별적으로 가정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측정치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8개월 323명, 24개월 320명, 30개월 298명, 36개월 276명의 아동들에게서 나타난 세 가지 범주의 30개 문법형태소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관찰 대상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4회기에 걸친 종단적 관찰 측정을 시도함으로써 발달적 추이를 살펴본 점에서도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언어발달 과정에서 문법형태소의 습득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휘 체크리스트의 어휘 목록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휘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종결어미, 조사, 연결어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자가 선정한 어휘 목록을 토대로 어머니들에게 아동의 표현 여부를 평가하게 하였으므로,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과잉평가(overestimate)가 작용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순형(2000)의 연구와 비교하여, 24개월에 주격 조사 표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41%, 이순형(2000)의 연구에서는 43%로 습득율이 비교적 차이가 없었으나, 목적격 조사를 36개월에 77.5%의 아동이 산출한 본 연구와 달리 이순형(2000)의 연구에서는 46.6%만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어머니의 평가에 기초한 반면, 이순형(2000)은 구조화된 특정 그림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산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진 자료라는 연구 절차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관찰을 통해 아동의 구어에서 표현되는 문법형태소의 습득만을 다루었으므로, 이러한 문법형태소가 실제로 문장표현에서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초기 문법형태소 사용에서는 실수도 관찰되고, 잘못 사용되는 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아동의 발화분석 자료나 관찰 연구들에 따르면 문법형태소가 잘못 사용된 실수 예는 빈도가 높지 않으며, 특히 종결어미의 경우에는 다양한 양상에 따른 비교적 정확한 사용이 관찰된다고 한다(이승복·이희란, 2006; Kim, 1997).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고되는 문법형태소 습득의 어려움은 이와는 판이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장애 아동의 영역별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광범위한 발달 연구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문법형태소 발달 지표가 정상발달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배소영(1997).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 연구: 조사, “가, 이, 는, 도, 를”. 『말-언어장애연구』, 2, 27-42.
- 배소영(2003). 영유아기의 의미평가도구 MCDI-K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8(2), 1-14.
- 서희선 · 이승환(1999). 2~5세 정상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4, 167-185.
- 이순형(2000). 한국 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 시기. 『아동학회지』, 21(4), 51-68.
- 이승녕(1966). 조사설정의 재검토. 동양문화연구소(편). 『동양문화』(제5집). 대구: 대구대학교.
- 이승복 · 이희란(2006). 『아이와 함께 하는 신기한 언어발달』. 서울: 정담미디어.
- 이승희 · 황민아(2002). 3~6세 한국 아동의 보조사 발달에 관한 연구: 은/는, 만, 도. 『언어청각장애연구』, 7(2), 24-45.
- 이익섭 · 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 이희란(2004). 2세 한국 아동의 주어 발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9(2), 19-32.
- 임홍빈(1998). 『국어문법의 심층: 명사구와 조사구의 문법』. 서울: 태학사.
- 조명환(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Clancy, P. M. (2001). 한국어의 주격, 목적격 조사의 습득. 조숙환, 김영주, 존 휘트만, 유키오 오츠, 노경희, 이현진, 최순자, 패트리샤 클렌시(공저), 『인간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 서울: 아카넷.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enson, L., Dale, P., Reznick, S., Bates, E., Thal, D., Hartung, J., & Reilly, J. (1993).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Baltimore, MA: Paul H. Brookes.
- Hoff, E. (2004). *Language development* (3rd ed.). Belmont, CA: Thomson Learning Wadsworth Publishing Co.
- Kim, S. Y. (1990). *The acquisition of Korean morphology: A case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 Kim, Y. J. (1997). The acquisition of Korean. In D. I.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4.) (pp. 335-44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C. (2001). Acquisition of topic and subject markers in Korean. In M. Nakayama (series ed.) & T. Kageyama (Vol. Ed.), *Issues in East Asian language acquisition: Kuroasio linguistics workshop series* (Vol. 7). Tokyo: Kuroasio Publishers.

ABSTRACT

## Acquisition of Grammatical Function Words in Korean Children

Hee Ran Lee<sup>a,§</sup>, You-Kyung Chang-Song<sup>b</sup>, Yu-Li Choi<sup>b</sup>, Seungbok Lee<sup>c</sup>

<sup>a</sup>Department of Speech and Hearing Therap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Korea

<sup>b</sup>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Seoul, Korea

<sup>c</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developmental norms of Korean children's acquisition of final endings, case particles, and connective endings from longitudinal data gathered from 18 to 36 months. **Methods:** Mothers of infants completed MCDI-K (Pae, 2003) at 18 (N = 323), 24 (N = 320), 30 (N = 298), and 36 (N = 276) months and the number of words in final endings, case particles, connective endings, and categories were analyzed. **Results:** At 18 months of age, only a few children produced grammatical function words. However, the average number of grammatical function words was 12.0, 9.67, and 2.15 at 36 months for final endings, case particles, and connective endings categories, respectively. The number of grammatical function words increased with age. By 36 months, most children in the study used grammatical function words. However,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use of grammatical function word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longitudinal study suggest that Korean children start to produce grammatical function words at 18 months and most children use grammatical function words by 36 month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on language development and on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language deficits are discuss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159-173)

**Key words:** longitudinal study, final endings, case particles, connective endings, grammatical function words, language development

---

---

Received April 15, 2008; final revision received May 5, 2008; accepted May 10, 2008.

§ Correspondence to Prof. Seungbok Lee, PhD,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8 Gaeshin-dong, Heungduk-gu, Cheongju, Chungcheongbuk-do, Korea, e-mail: lsbok@chungbuk.ac.kr, tel.: +82 43 261 2193

© 2008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References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 M. H. (1982). *Language acquisition strategy of Korean childre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Clancy, P. M. (2001). The acquisition of the nominative particles and accusative particles in Korean. In S. H. Cho, Y. J. Kim, J. Whitman., U. Otz., K. H. Noh., H. J. Lee., S. J. Cho., & P. Clancy (Eds.), *How human does acquire the language?* Seoul: Acanet.
- Fenson, L., Dale, P., Reznick, S., Bates, E., Thal, D., Hartung, J., & Reilly, J. (1993).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Baltimore, MA: Paul H. Brookes.
- Hoff, E. (2004). *Language development* (3rd ed.). Belmont, CA: Thomson Learning Wadsworth Publishing Co.
- Im, H. B. (1998). *Korean grammar: Grammar of NP and PP*. Seoul: Taehaksa.
- Kim, S. Y. (1990). *The acquisition of Korean morphology: A case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 Kim, Y. J. (1997). The acquisition of Korean. In D. I.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4.) (pp. 335-44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C. (2001). Acquisition of topic and subject markers in Korean. In M. Nakayama (series ed.) & T. Kageyama (Vol. Ed.), *Issues in East Asian language acquisition: Kurosio linguistics workshop series* (Vol. 7). Tokyo: Kurosio Publishers.
- Lee, H. R. (2004). A study of early subject acquisition in Korea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9(2), 19-32.
- Lee, I. S., & Chae, W. (1999). *Korean grammar*. Seoul: Hakyehsa.
- Lee, S. B., & Lee, H. R. (2006). *Wonderful development of language with children*. Seoul: Jeungdam Media.
- Lee, S. H., & Hwan, M. A. (1999). The development of three Korean semantic particles - *nun*, *man*, *do*- 3 to 6 years 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7(2), 24-45.
- Lee, S. L. (1966). Reappraisal of the Particles. In Research Center for Oriental Culture (Ed.). *Oriental Culture: Vol. 4*. Daegu: Daegu University.
- Pae, S. Y. (1997).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of Korean children: Particles *ka*, *i*, *nun*, *do*, *lul*. *Korean Journal of Speech-Language Disorders*, 2, 27-42.
- Pae, S. Y. (200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adaptation of MCDI. *Korea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8(2), 1-14
- Sue, H. S., & Lee, S. H. (1999). The development connective endings of 2-5 years old norm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 167-185.
- Yi, S. H. (2000). The acquisition of Korean grammatical morphemes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1, 51-68.